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미 손보업계, 새로운 금융시장안정법안에 반발

- 지난 16일 크리스 도드(Chris Dodd) 상원의원이 금융시장안정법안(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을 발표한 후, 이 법안이 손해보험회사와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동 법안은 대형 금융사의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감독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연방준비은행(FRB) 내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며, 재무부 내에 보험산업을 모니터하기 위한 연방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도드 의원의 법안으로 인해 현재의 주단위 보험산업 규제에 추가적인 연방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미국보험협회(America Insurance Association)는 현재의 주단위 보증기금제도가 소비자보호 임무를 잘 수행해오고 있으며 AIG사태도 견뎌낼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추가적인 펀드 각출을 요구하거나 연방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손해보험 산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자산규모가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보험사의 경우 연방준비은행과 체계적 위험 감독 협의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보험사들도 체계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금융사를 규제하기 위한 기금에 참여하도록 강제될 수 있음.
 - 미국손해보험협회(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 또한 손해보험산업은 체계적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와의 약속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손보사에 대한 이중규제는 일자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반발함.
 - 미국상호보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는 보험산업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되는 연방기구가 보험사에 대한 소환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 과도하며, 보험산업을 모니터하기 위한 데이터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설립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Insurance Journal, 3/16)